

취약계층 전국 평균 2배 웃도는데 광주·전남 사회적기업 열악

韓銀 세미나...지역특성 살린 사업 육성 절실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미흡한데다 지원기반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주최로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강길상 기획조사부장은 인구 대비 취약계층이 많은 광주·전남의 특성상 사회적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인구 대비 취약계층은 광주 4.5%, 전남 5.5%로, 전국 평균(3.1%)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2.1%)보다는 2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51개(광주 25개, 전남 26개), 고용자 수는 1358명(광주 484명, 전남 874명)으로 지역 경제활동인구의 0.09%에 불과해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사회적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연간 1000만원을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약 10%에 그쳤다.

특히 사업비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에 의존하는 등 지원기반도 취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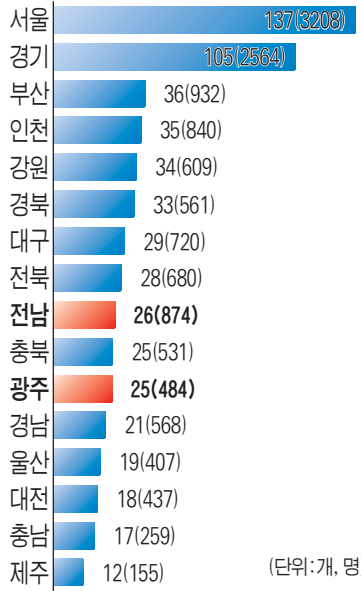
올해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은 광주 76.9%, 전남 75.8%로 절대적이었다. 이에 따라 최대 인건비 지원기간 5년이 끝나면 고용인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강 부장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문화예술자원, 천혜의 자연경관, 풍부한 남도 먹거리 관련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여수 엑스포 등 지역의 국제사업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공연 개최 등에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밖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유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행정조직을 통합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재정지원 일차 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부장은 "올해 개설 예정인 민간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구를 적극 확충해야 한다"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제도의 확대, 지역기반 지원펀드

지역별 사회적기업수와 고용자수



(단위:개,명) (자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1.11월말 기준)

조성,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업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외부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회적 기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年 100억 클레임비용, 기술 지원 받아 10억으로 낮춰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 3년간 中企 764곳 지원

삼성·LG전자 등 국내 TV 제조사에 핵심부품인 커넥터를 공급하는 W사. 3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지만 제품 불량으로 연간 100억원가량이 썼다. 지난해 전자부품연구원의 커넥터 핀 산화도 측정장비와 연구인력을 지원받아 클레임 원인을 밝혀내면서 클레임 비용을 10억원으로 낮췄다.

대기업 협력업체인 LCD도광판 필름 제조기업 T사. 필름에 이물질이 들어간 불량으로 납품 거래가 끊겼다. 연구원에 도움을 요청해 불량을 해결했고, 대기업 거래도 다시 돌아서 연간 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센서제작업체 K사는 신제품을 개발해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유럽

시장을 개척했다.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세영)의 '디지털정보기 전자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3년간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700여개사에 장비와 시설 등을 지원해 8조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시설을 구축해 시제품 제작 및 제품의 시험·평가 지원한다. 또 연구인력을 지원해 기술 애로를 해결해 준다.

광주본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09년 210개사(매출 2조6000억원), 2010년 252개사(2조9510억원), 지난해 284개사(3조3350억원) 등 총 746개사를 지원, 매출 8조8860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 연구원들이 냉장고용 콤프레서 인버터에 전류부하 시 열충격 시험을 하고 있다.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 제공)

역원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줬다.

광주본부는 또 광주 전자산업의 벤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창업보육실을 운영, 20여개사가 신규 창업을 이끌어냈다. 이밖에 고아정공 등 7개사를 유지했다.

김세영 본부장은 "기술 지원에서 공동 R&D사업 발굴, 기술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산업진흥협의회 정기총회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22일 본부동 대회의실에서 '2012년 광주지역 산업진흥협의회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광주지역 주요 산업별 대표자와 기업지원기관, 언론사 대표 등 28명이 참석해 2단계 호남권 광역선도사업과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육성사업 등 광주시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22일 본부동 대회의실에서 '2012년 광주지역 산업진흥협의회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광주지역 주요 산업별 대표자와 기업지원기관, 언론사 대표 등 28명이 참석해 2단계 호남권 광역선도사업과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육성사업 등 광주시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금호그룹 내달 5일까지 상반기 대졸 사원 채용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12년도 상반기 대졸 신입 및 경력, 인턴사원을 뽑는다.

지원 대상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오는 8월 졸업예정자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한자시험, 면접전형, 건강검진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입사는 올 7월이다.

인턴사원은 내년 2월 졸업예정자로 서류전형과 면접, 건강검진의 단계를 거쳐 오는 7월부터 6주간의 인턴실습 후 최종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입사예정일은 내년 1월이다. 경력 사원 채용은 오는 26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금호아시아나 그룹 홈페이지(http://www.kumhoasian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똑같은 라면값... 알고보니 담합

공정위, 농심·삼양식품 등 4개 제조사에 과징금 1354억 부과

9년 동안 라면값 공동 인상을 밀약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아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13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업체에 과징금과 함께 담합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농심이 1077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116억1400만원), 오뚜기(97억5900만원), 한국아쿠르트(62억76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1년 5월~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

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가격인상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70%나 되는 농심이 주도했다.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해당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 주면 같거나 유사한 선에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들이 교환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해당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기간 등 순차적인 가격 인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다.

실제 농심이 2008년 2월 20일 '신라면' 가격을 650원에서 750원으로 올리자 3월 1일 삼양식품이 '삼양라면' 값을 750원으로 맞추고 오뚜기와 아쿠르트도 '진라면', '왕라면' 가격을

4월1일부터 함께 인상했다.

이 때문에 각사의 대표제품 가격이 한두 달 시차를 두고 매년 똑같은 인상률로 오르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 정보뿐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목표, 거래처 영업지원책, 홍보·판매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를 상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내실을 강화하기도 했다.

정보교환의 창구는 매년 3월 말 각사 임원급이 참여하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와 부·과장급 직원이 모이는 간사회의였다. 라면협의의 담합은 2010년 라면업계 가격 인하 때부터 4개 업체가 각기 다른 가격을 결정하면서 사라진 상태다. /연합수스

KT 매장서 중고 휴대전화 매매

광주·전남 40곳 등 '올레 그린폰' 서비스

가까운 KT 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KT는 22일 국내 최초로 대리점에서 직접 중고 휴대전화를 사고 파는 '올레 그린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T는 광주·전남 우수 올레매장

40곳 등 전국 250곳에서 아이폰4와 16종류의 일반 휴대전화(피쳐폰)를 중고로 살 수 있다. 또 가지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도 매장에서 즉석감정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올레 매장에서 파는 아이폰4는 주요 부품을 교체해 재생산한 '리

매뉴팩처폰'이다. 앞으로 아이폰3G와 스마트폰 15종도 사들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중고 휴대전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KT는 올레 그린폰 서비스를 통해 직접 휴대전화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불편 때문에 거래가 뜸했던 중고 휴대전화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는 서비스 매장을 우수 매장에서 전체 전문 대리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26.12 (-1.11)
코스닥지수	527.90 (-6.03)
금리 (국고채 3년)	3.63%
원·달러 환율	1,129.40원 (-0.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호남최대 원목가구 Sale

쇼핑몰 hong79.com(홍친구 닷컴)

원목식탁 30종류

천환경원목&모던침대 20종류

거실 TV장 20종류

친환경 원목가구 셀러, 인까사, 광주대리점 까사또 한국총판
신혼가구에서 이태리가구 까지 원목가구만 200평 대형매장

hong79.com
홍스페이스 1899-0240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대산프리모가발